

안시현 "이번엔 내 차례"

LPGA 다케후지 클래식 1R

7언더 2위...김미현 등 한국 4명 공동 3위
시즌 세번째 우승 향해 순조로운 출발

안시현(22)이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남자군 세 번째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안시현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골프장(파72·6천550야드)에서 열린 다케후지 클래식 첫날 7언더와 65타를 치며 단독 2위에 올랐다.

선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9언더와 63타)와는 2타차. 지난 3일 끝난 메이저대회 크래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카리 웹(호주)에게 우승컵을 내줬던 오초아는 이날 2개의 이글을 잡아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의 성적을 냈던 안시현은 보기는 2개에 그치고 버디는 9개나 잡아내는 팽타를 휘둘렀다.

특히 안시현은 11번홀에서 16번홀까지 6개의 풀버디를 잡아내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오랜 슬럼프 끝에 부활의 나래를 퍼기 시작한 김미현(29·KTF)은 1번홀(파4) 보기가 아쉬웠지만 이후 6개의 버디를 꿰뚫으며 5언더와 67타로 공동 3위에 올라 우승을 노리게 됐다. 올해부터 LPGA 투어 무대에서 뛰게 된 이지영(21·하이마트)도 보기는 2개로 막고 7개의 버디를 낚아 감지민(26·CJ) 등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 이선화(20·CJ)도 5언더파로 3위 그룹에 합류하며 LPGA 첫 우승을 사정권안에 두었다.

시즌 개막대회 SBS오픈 우승자 김주미(22·하이마트)와 필즈오픈 우승자 이마나(25·KTF)는 나란히 3언더파를 치며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과 공동 23위.

장정(26·코브라골프)은 2언더와 70타 공동 44위,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한 타 뒤진 1언더와 71타 공동 57위로 출발이 썩 좋지는 않았다.

이밖에 박세리(29·CJ)는 2오버와 74타의 부진으로 공동 117위로 밀려 첫 통과를 걱정하게 됐다.

/최재호 기자jeon@kwangju.co.kr



안시현이 14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골프장에서 열린 다케후지 클래식 첫날 7언더에서 어프로치샷을 날리고 있다.

'이동국 공백' 누가 채울까

안정환-조재진 카드 활용
박주영 자리이동 등 검토

누가 이동국의 빈 자리를 채울까.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이 무릎 수술로 독일 월드컵 참가가 좌절되면서 아드보카트의 대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독일 월드컵 축구 개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디 아드보카트 대표팀 감독이 포메이션이나 전술 등에서 큰 틀은 흔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14일 "지금까지 팀 전술을 완성해 왔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은 감독이 결정할 문제다. 이동국의 대체 선수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남 일화의 김학범 감독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라는 것도 없고, 큰 틀의 변화도 필요없다"면서 "안정환(위스부르크)과 조재진(시미즈)을 기용하거나 원포워드 중 박주영(서울)의 자리 이동 정도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또 "아드보카트 감독이 스틸러스를 선호하는 것은 활동량이 많은 원포워드 지원자들이 공격에서 역할 뿐 아니라 특이 수비시 미드필더진에 가담해 중원 싸움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역시 포메이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해성 제주 유니티 감독도 "현 대표팀 내에서도 대안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 멤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라며 "이동국의 부상이나 부진을 대비해 아드보카트 감독도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Table with player profiles: 이동국 대체 예상 선수, 조재진(시미즈), 안정환(위스부르크), 박주영(서울FC), 심기현(울버햄프턴). Includes physical stats and career highlights.

'이동국 무릎수술후 6개월간 재활'

'후회없다' 미니 홈피 심경 밝혀

잔혹하게 연습한 부상으로 8년 간 기다려온 '월드컵 꿈'을 접은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이 언제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을지 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3일(이하 한국

시간) 이동국을 진단한 스포렉(Sporeg) 스포츠재활센터 라인하르트 게벨 원장은 "독일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100% 불가"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수술 이후 6개월간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국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애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상이다. 따라서 이동국은 빨라야 10월 말 K-리그 후반기 말미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동국은 14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힘들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정환 '마지막 승부'

아드보카트 경기 관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안정환(30·위스부르크)이 디 아드보카트 축구 대표팀 감독 앞에서 마지막 월드컵 승부 시험을 치른다.

안정환은 15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 리그 2위인 SV 함부르크와 분데스리가 30차전 홈경기에 출격을 앞두고 있다.

안정환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독일로 날아와 직접 경기장을 찾았던 지난날 19일 프랑크푸르트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지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안정환으로서는 해외와 점검을 위해 최근 유럽을 다시 찾은 아드보카트 감독 앞에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모비스 변칙 vs 정공 삼성

19일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9일 시작될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2005~2006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4선승제)은 변칙 대 정공법의 지략 대결이 불가하다.

사실 농구에서 어떤 것이 정공법이고 변칙이라고 딱히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유재하 모비스 감독은 13일 전주 KCC와 4강 플레이오프를 승리한 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수비를 펼쳐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정규리그 때와 다른 변화를 예고했고 안준호 삼성 감독은 반대로 "평소처럼 정공법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했기에 '변칙-정공법'이라는 구도를 그려볼 만 하다.

이렇듯 두 감독의 작전이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매치업에서 삼성이 유리하기 때문이

다. 양동근-이정성, 이병석-강혁까지는 비슷한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비스 입장에서는 삼성 서장훈과 율우미에 오예데지, 네이트 존슨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장과 장량에서 다소 밀리는데다 삼성은 수시로 장신 이규삼까지 '조커'로 쓸 수 있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유재하 감독이 들고 나올 새 수비작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정공법으로 맞설 계획이다.

정규리그에서 4승2패로 우세한 성적을 남긴 데다 대구 오리온스와 4강전에서도 매치업의 우위를 적극 활용, 서장훈이나 존슨에 공격 기회를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3연승을 거두며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상욱 공동 54위 부진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1R

나상욱(22·코오롱)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첫날 공동 54위에 머물렀다.

나상욱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 헤드아일랜드 허버타운골프링크스(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1타를 쳤다.

나상욱은 마스터스 기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나 실전 감각이 떨어진듯 퍼트수가 31개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본 테일러(미국)가 8언더와 63타를 쳐 짐 류릭(미국)에 1타차 선두에 나섰다.

/최재호 기자jeon@kwangju.co.kr



15일(토)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애들랜트>(08 : 25·Xports), <샌프란시스코-LA다저스>(11 : 30·Xports)

▲프로축구 전기리그<포항-대전>(14 : 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요코하마-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두산>(18 : 20·KBS SKY SPORTS), <현대-

KIA>(18 : 30·MBC ESPN)

▲05/06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위스부르크-함부르크>(22 : 10·KBS SKY SPORTS)

16일(일)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3R)(04 : 0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요코하마-요미우리>(13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두산>(13 : 45·KBS SKY SPORTS), <현대-KIA>(14 : 00·MBC ESPN)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블랙번-리버풀>(22 : 30·MBC ESPN)

Advertisement for '지붕 옥상을라브' (Roof Terrace) featuring a swimming pool and BBQ. Text: '지붕 옥상을라브 우베탄폴 망수전원! 지붕 망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Contact: (주)태양주빌개발 TEL:062) 282-0606, 282-8458.

Advertisement for '부대찌개' (Buddaejjigae) featuring a bowl of spicy stew. Text: '부대찌개 체인점 모집'. Includes phone number 010-957-0179.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Text: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Includes phone number 010-957-0179.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Text: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1위'. Includes phone number 361-8111.